

1. 2008년 국내외 경제 및 농업 부문 전망

- 2008년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미국 내 신용도가 낮은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사태)의 후유증, 중국·인도 등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유가 및 원자재(각종 광물과 곡물 등) 가격 급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매우 높다. 결국 전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스태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경제학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 한국은행과 각 경제연구소들은 2008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를 4.7% 선에서 잡고 있지만, 내수 성장을 통한 국내 경기 회복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속에서 국내 농업 및 관련산업은 생산비 인상(사료값, 유류값, 농자재값 등)과 소비 감소로 인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높다.
- 또한 최근 국내 은행들은 자금난을 겪으면서 잇달아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 속에서 국내 주택담보대출 등의 연쇄적인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자칫 농업 부문의 자금 운용 및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 DDA 농업협상은 개도국 특별품목 및 민감품목, 특별세이프가드(SSG) 등의 문제가 불거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EU(유럽연합)·브라질·인도 등 협상 주도국들의 타협이 이뤄질 경우 언제든 협상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관세상한 설정, AMS(보조총액측정치)의 급격한 감축 등을 골자로 한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모델리티)의 큰 틀은 변하지 않았고, 농업개도국 지위 확보도 불투명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협상 진행마저 예상된다.
- 2월말 새 정부 출범, 4월 총선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이 잇달아 언급했던 한-미 FTA의 국회비준이 시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력 정당 중 어느 곳이 정권을 잡든, EU(유럽연합)·중국·인도·캐나다·멕시코 등과 동시다발 FTA 협상이 가속화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시장 개방 확대를 전제로 한 농업 부문의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 석유 등 에너지자원 고갈 문제가 심해지고 있으며, 각종 농업재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토피 등의 질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파동, 외국산 저가·불량식자재 문제로 인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와 학교급식법·조례 개정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더욱 커질 것이다.

2. 한농연의 2008년 활동 방향

- 2007년 6·20 한농연 2차 총결기대회와 11월 5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는, 국민과 함께 하는 한농연 농민운동의 발전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를 토대로 새정부 출범과 총선 등의 중요한 정치 일정을 활용, 당면 농정현안의 농민중심적 해결과 함께 한농연 조직의 정비·활성화에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대선 정국에 묻혀 있던 한-미 FTA 국회비준 문제는 새정부 출범 전후 최대 농정과제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농연은 국회비준 저지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일으켜 정부와 정치권의 성의 있는 대안 마련을 적극 관철시킬 것이다.
- 2007년 정기국회에서 좌절된 “쌀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농연 각 지역 조직 및 회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며, 쌀 목표가격의 동결을 통한 농가소득 하락 방지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
- 2007년 12월 27일 신임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계기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의 제도·운영·조직 등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한 한농연 및 농업계의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한농연은 농협 이감사·대의원 교육 등을 활성화하여, 농협 혁신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합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한농연은 특히 2015년을 바라보며 중장기적인 조직·정책·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조직 내외부를 아우르는 진단과 지역순회 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 창립 20주년을 넘어선 한농연 조직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만들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할 것이다.
- 이외에도 통일농업 실현을 위한 남북농업기술교류 활동 및 아시아농민연합(AFA) 등과의 국제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 나가며 한농연의 대내외적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